

커미션: <https://www.postype.com/@duke-rabbit/post/15144744>

5번째의 사랑이었다 <- 이거입니다



냠님 커미션



코핀님 커미션

- 사복 입지 않음
-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침

이름

판도라 (Πανδώρα, Pandora)*

- 이 시기/세계관의 사람들 이름은 보통 그로신 등장인물(최소한 그리스식 이름)

성별

여성

활동시기

고대~멸망* (약 1만 2천년 전)

- 파판14 세계관에서는 원래의 유토피아(고대/원형 세계)가 있었으나 세계 멸망의 징조가 보여 이를 막기 위한 몇 차례의 시도 -> 세계가 14개로 분할 (그러나 세계 멸망 막기(미루기) 성공)

가족 정보

부모님, 반려 사역마 (대충 작고 동글동글한 털동물)*

- 고대인은 원하는 생명체/물체 등을 '창조'할 수 있었음 (이데아 창조)
- 창조하는 법: 이데아가 담긴 크리스탈을 이용한 마법(특정한 생명체 or 물건: 동식물, 발명품) or 그냥 창조(일상적인 물품: 로브)

외관

앞머리 있는 금발

허리즈음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있는 장발

살짝 처진 동그란 눈

보라색 눈동자 - 스타티스(꽃말: 영원한 기억) 닮은 색

조금 작은 키

중지 첫마디에 박힌 굳은살

손, 발 작음

따스한 분위기의 미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낙천적인 성격을 가져 아카데미* 선후배간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창조물을 폐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함. 아카데미 입학 초기 이루어진 자질 시험에서 만들어진 부족한 환경에서 자신의 것을 먼저 쟁기는 법이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같은 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노력함. 이론

아침부터 수업이나 당번이 있을 때 **밝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타의 모범이 됨. 어린 창조 생물을 **상냥하게** 돌보며, 어린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함.**

호기심과 의욕이 많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 **학구열이 동기들 중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의로 남아 다른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보임. 높은 학구열과 달리 성취욕은 크지 않아 노력 이하의 성적이 나오더라도 소란을 피우지 않음. 원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꽂힐 경우 금지된 행동 또는 **올바른 시민이 하기엔 충동적이라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한 편이나 규칙을 상기시켜주면 스스로 자제하기 위해 노력함.**

* 고대인들이 창조 마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설립한 학술기관: 애나이더 아카데미아

드림캐:휘틀로다이우스

관계- 연인

전체적 분위기- 판도라가 휘틀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책 붙어있음 (평소)

근데 판도라는 휘틀로 없어도 그럭저럭 잘 이겨내고 사는데 휘틀로는 못할듯

호칭

휘틀로 → 판도라 - 판도라(평소), 부국장(직장), 판-도라(부탁할 거 있을 때)

판도라 → 휘틀로 - 휘틀로(평소), 국장님(직장), 휘-틀로(부탁할 거 있을 때)

* 딱히 싸운 적은 없어서 화났을 때 호칭은 생략

* 창조물관리국

* **창조물관리국이란?** 앞서 설명한 '이데아가 담긴 크리스탈' 중 창조물의 크리스탈 제작 협회에 관여하는 기관.

누군가의 개성이 담긴 창조물의 경우 제작자만 창조할 수 있음 -> 제작자가 자신의 창조물을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길 바람 -> 창조물관리국에 등록 후 심사 -> 심사 후 크리스탈 제작 or 보완 요청 or 폐기 결정

첫인상과 현인상

휘틀로 → 판도라

첫인상

- 선배, 작다, 동그란 정수리

현인상

- 여전히 작고 정수리는 둥글고, 근처에 두면 묘하게 거슬리지만 거리 두면 더 거슬리는 사람

조디아크* 완성 직전

- 그건 거슬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음!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지말고 키스라도 해볼 걸, 뾰뽀라도 해줄 걸, 포옹이라도 해볼 걸, 아니, 손이라도...하는

후회

* 조디아크: 앞서 설명한 멸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신 (마음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으로 세계를 구하려고 함) 애를 만들려고 고대인 인구의 절반이 희생됨.

-> 조디아크의 강대한 힘을 경계한 생존자들이 새로운 신 하이델린 제작 -> 조디아크 vs 하이델린 -> 세계 14등분 (+ 종말 미뤄짐)

판도라 → 휘틀로

첫인상

- 후배, 웃는 게 예쁨

현인상

- 여전히 웃음이 예쁘고 상냥한 사람. 귀찮아하는 거 아니까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연인이니까 이것저것 같이 하고싶은 게 많음

조디아크 만들기 직전(대충 일주일쯤 전)

- 자기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희생 결정한 거 보면 진짜 나 혼자 좋았던 연애였는가보다!

조디아크 만든 후

-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서 별을 가꿔야지!

관계의 발전

아카데미 선후배 -> 친구 -> 썸? -> 연인? -> 연인

1) 첫만남

- 큰 이벤트 없음.

학술원 신입생 입학식/환영식때 스치듯 본 사이.

서로를 인지...? 아무튼 제대로 얘기 나눠본 건 점심시간일듯? 점심 먹는 도중에 어디선가 열나게 토론하고 있길래 끼어들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는 걸 듣다가 한마디 얹으려고 끼어들었다가 같이 열나게 토론함... 점심시간 끝 종 치고 서로 좋은 싸움이었다... 하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다음에 토론하다가 생긴 의문점 가지고 민중 토론관 가자고 번호?같은 거 교환함

하데스: 빨리 가자고

테티스: (쟤네 저러다 사귄다에 만원 건다)

→ 우리집 아줌 이름 (= 얘가 갈라져서 세실됨)

2) 친해지게 된 계기

- 진짜 민중 토론관 가기 (주제: 트롤리 딜레마처럼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 구하기같은...)

그 주 주말에 따로 만나기로 약속 잡고 민중 토론관에서 토론함. 근데 둘 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하데스랑 테티스가 반대쪽 의견 준비해와야했음. 토론 끝나고 머리 써서 배고프다고 넷이서 밥 먹고 간식 먹다가 테티스는 당시 아줌이었던 베네스 따라가고 하데스는 테티스 따라가고... 휘틀로는 둘이 썸타는 거 아니라 판도라랑 계속 놀고... 그렇게 서로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돼서 4명 필요한 일 있을 땐 판도라가 머릿수 채우게 됨(ex. 둘이서 타야하는 놀이기구)
평소엔 판도라는 한 학년정도 위라서 듣는 수업이나 학기별 스케줄이 안맞아서 자기 친구들이랑 다니는 편.
(친구 이름: 뀔라, 시카)

3) 재학 기간

- 아마 이때부터 썸타기 시작함

주로 판도라가 공부+연구+토론 준비+기타 교수님 잡심부름 하고 있으면 휘틀로가 쫄래쫄래 따라가서 거들어주거나 일을 부풀릴듯 (휘: 어라~ ○○도 좋지만 □□도 좋을 거 같은데~ -> 판: 재밌겠다 그것도 연구해볼래...) 휘틀로가 먼저 좋아하기 시작해서 판도라한테 붙어있기 시작한 건 아니고 하데스랑 테티스가 아슬아슬하게 곧 고백할 거 같은데?! 해서 눈치껏^^ 둘만의 시간 가지라고 피해준 거일듯... 판도라는 무료 연구 조수가 생겨서 편하고 좋음 (가끔 휘틀로때문에 연구하고 싶은 거 늘어나면 기쁘긴 한데 또 밤샘할 생각에 쪼끔 슬퍼짐)

그리고 하데스랑 테티스 사귀기 시작한 후로는 어우~ 닭살~ 하는 핑계로 판도라한테 붙어있을듯... 사실 별로 안오글거리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좋기만 한데 이상하게 판도라랑 있어야 뭔가 안정되는 느낌이라 찾아오는 거 같고... 그래서 판도라한테 뭔가 플러팅 비스무리한 걸 시도하려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떨어졌을듯..

그만큼 붙어있었으니 판도라 연구에 대해 판도라 다음으로 잘 아는 게 휘틀로라서 + 언제나 연구실에 착
붙어서 보조해주던 사람이 휘틀로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휘틀로 찾으니까 휘틀로 주위에서 플러팅
시도해보려는 사람도 떨어졌을테고... 판도라한테 휘틀로가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디폴트 일상 될듯

4) 졸업 후

- 판도라가 (취업으로) 바빠서 자주 못? 본 시기인듯...

고대의 취뽀가 어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서 대충 지금이랑 비슷하게 있다고 치면... 판도라는 교수님
추천으로 대학원 비스무리한 기관에 잠깐 들어갔을 것 같음. 근데 연구가 직업이 되니까 예전처럼 하고싶은
것만 할 수도 없고 별로 안땡기는 연구하느라 하고싶은 연구할 짬도 못 내니까 퇴사각이나 재고 있을듯... (근데
끝까지 퇴사 못하고 학위 따게 됨)

연구는 못해도 휘틀로는 가끔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졸업 전엔 일주일에 네다섯번 만나다가 졸업 후엔
한달에 두 번이 평균이고 서너번 보면 자주 보는 게 될 거 같음. (갠적으로 직장인이 한달에 한번만 봐도
사랑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휘틀로는... 이때부터 자기의 두근두근한 감정 전체를 거슬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할듯... 판도라랑 연관된
일만 아니면 평범하고, (에테르를 보니까) 때로는 좀 더 특별하게? 대단하게? 지내는데 판도라만 연관되면
감정이 주체가 안돼서 간단한 일도 복잡해지니까...

테티스: 졸업 직후 아점 자리 물려받음 -> 휘틀로/판도라 고민상담 들어줌 (당시 감상: 히히재밋따)

5) 창조물 관리국

- 이제 휘틀로가 선배, 판도라가 후배 + 이때부터 사귐

창조물 관리국에 취직은 휘틀로가 더 먼저 했을 것 같음. 그리고 그보다 살짝 늦게 대학원 졸업하고 창조물
관리국 들어왔을 것 같고... (일단)짱친후배 있으니까 입사한 걸테고... 판도라 신입 시절에 휘틀로한테
에메트셀크 제안 들어왔는데 하데스라는 다른 적합자 있음+에메트셀크 되면 간신히 다시 판도라랑 같은
소속이 됐는데 헤어져야함 << 으로 거절할 거 같음. 판도라는 하데스가 더 어울리니까~ 만 듣고 그렇구만. 함..
판도라가 부국장 찍기 전부터 부국장 된 후까지 서로 하도 붙어있으니까 (희: 거슬리는데 거리 두면 더 신경쓰임
/ 판: 나 재 좋아하는데) 주위에서 혹시~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어느날 같이 저녁 먹다가 그냥 사귀기로 함.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캐묻다가 얘기 들은 테티스는 뒷목 잡았을듯

이 이후: 판도라는 자기 감정이 뭔지 확실하게 아니까 연인다운 무언가를 바라는데,
휘틀로는 이게 단순한 번거로움, 귀찮음, 거슬림, 성가심이라고 생각해서 슬쩍 피함.
근데 판도라를 놔주긴 더 싫어서 자기 옆에 붙여둠

테티스: 그게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휘틀로: 안믿음 + 이게 사랑이라도 그런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판도라한테만 더 잘해주면 그건 차별이잖아.)

하데스: 냅두면 죽기 전엔 알아서 알아차리겠지. 앞으로 있을 끝없는 시간을 두고 왜 이리 조급해?*

* 고대인은 원한다면 영생 가능 (자신이 '해야할 일을 모두 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별의 바다(=명계)'로
돌아간다(=죽음)로 스스로 언제 죽을지 선택 가능)

6) 조디아크 소환

- 휘틀로가 자원, 판도라는 3~5일쯤 전에 알게 됨

휘: 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일

판: 와... 저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짜 나만 좋아했던 거네?????

하루 전에 하데스 + 테티스 + 판도라 + 휘틀로 지인들 구성으로 다같이 모여서 작별인사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먼저 안길 판도라가 그냥 웃으면서 보기만 해서 휘틀로도 좀 신경쓰이긴 할듯...

그리고 10초 전, 휘틀로: 자기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후회

7) 이후 판도라

- 14조각으로 갈라짐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

고대

테티스 (아젬)	선배~인데 친구같은 사람. 말도 잘 통하고 잘 웃고 근데 휘틀로랑 관계에 대한 진지한 대화 시도조차 슬쩍 피하니까 앞으로의 관계가 좀 걱정되긴 함.	늘 사고치느라 바쁜 애. 근데 재밌어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상담할 때마다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 같은데 선배라서 못하는 거면 지금은 그런 거 상관 없는 동료 시민이니까 얘기해주길 바람.	판도라
하데스	바보같은 녀석이랑 사귀는 바보같은 선배	싸가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헛갈림	판도라

현대

세실리아: 시민 <-> 영웅

에메트셀크: 어라 이녀석은? <-> 갈레말 초대 황제?

세실리아	시민	영웅	???
에메트셀크 (솔조갈)	어라 이녀석은?	갈레말 초대 황제	???

참고사항

1) 애정행각 진도: 볼뽀뽀

2) 평소 데이트

- ⓐ 학생시절: 그냥 만나서 노는 거. 밥 -> 창조생물 돌보기/놀이공원? 어린 시민을 위한 학습 장소 -> 카페
- ⓑ 대학원 시절: 밥 or 카페 -> 공원 산책(걷다가 어디에 한번 앉으면 판도라가 잠들었음)
- ⓒ 관리국 시절: 밥 or 카페 -> 판도라가 찾아낸 데이트 장소(주로 아젬 추천) or 민중 토론회 -> 밥

3) 판도라가 부끄러워졌을 때: 귀만 새빨갛게 달아오름

4) 학창시절 인기

판도라: 밝음 명랑 활기 다정 미인 <- 인기 짱 많음 근데 웬 보라머리가 붙어있어

휘틀로: 다정 온화 미인 장난기 <- 인기 짱 많음 근데 하데스랑 테티스 아니면 웬 금발 선배랑만 놀아

5) Q. 그럼 사귀면서 n천~n만의 시간동안 볼뽀뽀만 했냐?

A. 둘 다 서로를 향한 욕망은 있었으나 제대로 된 소통(판도라)과 자기 감정 알기(휘틀로)의 부재가 문제